

8/8/21

설교 제목: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출애굽기 11 장 1-10 절

(출 1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출 11:2)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출 11:3)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출 11:4)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출 11:5)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멧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출 11:6)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출 11:7)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출 11:8)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출 11: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출 11:10)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본문은 마지막 열 번째 장자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저자 모세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11 장과 12 장 2 장에 걸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아홉 번의 재앙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재앙(출 12:29-36)을 기술하기 전 재앙에 대한 경고(출 11 장) 유월절 규례(출 12:1-14) 무교절 규례(출 12:15-20) 유월절 준비(출 12:21-28)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의 아홉 가지 재앙들이 이 마지막 재앙을 위한 과정으로 앞의 재앙들이 이 마지막 재앙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열 번째 재앙을 기록하기 전에 어떻게 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에 대해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출 11:10)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이같이 한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재앙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재앙은 이제까지의 재앙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파괴력과 고통을 수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탄식과 울부짖음을 초래할 이 재앙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이 절정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 여기까지 온 것이 순전히 바로의 교만과 고집 때문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아홉 번의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바로의 어리석은 선택에서 비롯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혹독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더욱 강박해져 아홉 번째 재앙 후 바로는 더 이상 모세와 협상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출 10:27)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출 10:28)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출 10:29)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에 모세도 같이 응대합니다.

이로 인해 바로의 마음을 꺾을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펼쳐질 정황이 무르익어갑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바로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남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재앙을 내리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신속히 내어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 1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출 11:2)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출 11:3)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서는 그동안 바로가 아홉 가지 재앙을 당했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거절했지만 이 마지막 재앙을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낼 것이며 이웃들은 은금 패물까지 주어서 보낼 것이고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재앙은 바로 장자 재앙 곧 사람과 가축의 첫 태생을 모두 죽이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인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 년 동안의 노동의 대가라고도 합시다만 그보다는 전리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예에게 무슨 대가를 지불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로부터 받게 되는 은금 패물은 승리로 인하여 주어지는 전리품입니다.

이 사실을 뒷바침 하는 것이 바로 3 절 말씀입니다.

(출 11:3)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본절은 이스라엘의 승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할수록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니 애굽의 신하와 백성들까지 모세를 위대하게 본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이 패배를 인정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결과로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에 대해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친히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을 사람뿐 아니라 가축까지 다 죽이신다고 하십니다.

(출 11:4)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출 11:5)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멧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출 11:6)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바로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경고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연고입니다.

(출 11: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출 11:10)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런 바로를 향해 애굽 땅에 나의 기적을 더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장자 재앙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출 11:7)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출 11:8)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은 절대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는 줄을 알리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난 것 즉 장자를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장자란 대표성이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는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롬 5:12) 이렇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애굽의 모든 자가 심판을 받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원죄 하에서 태어났고 결국 심판과 사망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와 애굽 사람만 원죄 하에 태어나 심판과 사망 아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롬 3:19)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자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롬 3:9)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요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장자를 치는 심판은 온 세상이 죄 아래 있고 그리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십니다.

이는 생과 사를 좌우하는 구별인 것입니다.

구별함을 받지 못한 자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멍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구별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구별하시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출애굽기는 이 한 가지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를 계시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12 장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한 가지 표징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심판입니다.

앞의 아홉 가지 재앙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재앙이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홉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는 자연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은 당신이 친히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출 11:4)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이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친히 들어가셔서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밤중에 캄캄한 애굽을 나올 것을 말해 줍니다.

유대인의 절기 중 유월절만이 밤에 일어난 유일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나온 것도 역시 죄와 사망이라는 캄캄한 세상에서 구출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애굽 전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을 것입니다.

애굽이 잔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로 인하여 탄식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잔치 소리가 통곡 소리로, 통곡 소리가 잔치 소리로 바뀝니다. 경고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우리를 향해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어 밤중에 친히 애굽에 들어가셔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듯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여 캄캄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 통곡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기뻐 찬송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인 우리들에게는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하얀 세마포를 입고 신랑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혼인 잔치에 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공의가 넘치는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